

# 韓國의 巫俗服飾 研究

—서울굿 巫服을 中心으로—

憲田專門大學校 衣裳디자인科

副教授 柳 孝 順

## 目 次

I. 序 論	1. 서울굿 巫服의 造形性
II. 서울굿의 실증적 연구	2. 서울굿 巫服의 象徵性
1. 서울굿의 개념과 구조	IV. 結 論
2. 서울굿의 巫服	참고문헌
III. 서울굿 巫服의 特性	ABSTRACT

## I. 序 論

원시사회에서부터 종교적 현상으로 존재해온 우리 민족의 무속은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무당이 주관하는 굿이라는 儀禮에서 司祭인 巫堂을 통해 많은 神들의 절대적인 힘을 빌어 현실생활에의 吉福을 추구하는 현세지향적인 宗教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巫服은 무속의 특징적인 현상인 굿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주로 降神巫의 굿에서 비교적 多樣하게 볼 수 있다. 降神巫는 굿을 할 때 巫堂의 몸에 神이 내려 神과 巫堂이 一體化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降神巫의 굿에서 巫堂은 人間으로서가 아닌 神으로서의 衣服을 착용하는 것이다. 降神巫의 굿 열두거리에 착용하는 巫服은 各 巨里別 神格에 따른 巫服이므로 비교적 여러 종류의 衣服들이 巫服으로 착용되어진다. 降神巫의 굿에서는 아직도 傳統服飾이 그 命脈을 희미하게나마 維持되고 있으며, 더우기 그 중 일부는 遺物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착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巫人들의 巫服은 死後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巫人의 死亡과 함께 巫服을 불태워 버리기 때문에 巫服의 傳統性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巫人들이 傳統服飾에 관한 知識이 없기 때문에 巫服에서 服飾의 傳統性이 점차 變形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傳統服飾이 왜곡된 채 繼承되고 있는 실정이다.

本考는 서울굿 巫服을 중심으로 한 韓國 巫俗服飾 중에서 朝鮮時代, 1930年代, 1970年代 및 1994年 現存 巫人의 巫服을 中心으로 研究하였다.

本 研究의 目的은 서울굿 巫服을 研究함으로써 現時點에서 우리의 傳統服飾 중 일부로서 神服으로 착용되는 巫服의 傳統의인 造形性을 整理하며, 또한 巫服에 表現되어 있는 象徵的인 要素들을 把握하여 그 體系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 II. 서울굿의 실증적 연구

### 1. 서울굿의 개념과 구조

서울굿이란 서울에서 행해지는 굿을 말한다. 오

늘날의 서울에는 各道의 巫人들이 모여 全國의 굿이 다 행해진다고 볼 수 있으나, 巫人에 따라 ‘한양굿’이라고도 불리는 ‘서울굿’은 그 자체가 특유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巫俗의 祭儀 즉 굿은 祭次를 뜻하는 ‘巨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거리는 祭神을 달리 한다. 각 거리는 신령을 불러 모시고 이에 축원하는 독립된 하나의 작은 굿으로 되어있다. 굿은 기본적으로 열두거리(12祭次)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행해지는 굿은 굿의 종류와 무당에 따라 꼭 12거리가 엄격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巫俗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무당들이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하여, 즉 자신의 신 어머니와 신아버지로부터 학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굿의 기본구조는 우리나라 굿의 구조와 동일하여 12거리를 기본구조로 하며 굿의 거리 명칭이나 순서는 무당에 따라 달리 하고 있다.

서울굿을 행하는 巫人은 巫人의 類型上 神이 몸에 내리는 降神巫로서, 降神巫란 巫人이 된 동기가

가 降神으로 인한 神意에 있는 것으로 신이 내림으로 무병을 앓고 무당을 만나 내림굿을 받아 巫術을 배운 무당을 뜻한다. 降神巫는 入巫 後에 降神한 몸주神이 있으며 그 몸주神을 모시는 神堂을 자기 집에 꾸미며, 神觀이 뚜렷하고 歌舞로써 降神交靈하며, 靈力에 의해 占卜을 행한다.<sup>1)</sup> 降神巫에서의 무당은 神의 위력을 나타내는 演技와 기술을 描寫한다. 이것은 작두 타기나 사실세움 등을 통해 하는데, 降神巫의 굿에서는 무엇보다도 神聖함이 강조된다.

本 研究에 제시된 서울굿은 宮中巫俗 1事例와 一般 民衆의 巫俗 14事例로 總 184巨里가 제시되었다. 이 184巨里들의 名稱은 神의 特性이 同一하여도 틀린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本考에서는 184거리를 神의 特性이나 各 巨里의 機能이 類似한 경우 同一한 群으로 하여 같은 巨里로 分類하여, 各 巨里의 特性과 그 巨里에서 착용되는 巫服들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표 1> 서울굿에 사용된 巫服

거 리	제 신	빈도 (사례수)	巫 服
부정거리	부정신	10	平常服
신장거리(산신장거리)	오방신장	10	狹袖
대감거리	대감신	10	平常服에 快子, 狹袖와 快子, 快子와 紅天翼
불사거리 (제석거리·칠성거리)	제석신, 칠성신	24	佛師長衫, 袈裟
조상거리	굿 의뢰자의 조상신	7	통일성이 없이 다양하게 착용
별상거리(별성거리)	痘神(별상신)	9	狹袖와 戰服, 綠色衣(혼합된 형태)
산신거리 (산거리·산마누라거리)	山神	10	具軍服, 天翼
감응청배(가망거리)	山神, 祖上神	7	長衣, 蒙頭里 등 다양하게 착용
호구거리(오귀거리)	天然痘神	9	平常服
말명거리 (말신말명·만명거리)	만명신	6	蒙頭里
구룡거리 (군웅거리·별군웅)	구룡신	6	天翼
장군거리(대거리)	將軍神(武官系)	9	天翼
대신거리	대신(文官系)	7	蒙頭里
뒷 전	이름없는 雜神	10	平常服

1) 金泰坤, 韓國巫俗研究, 集文堂, 1991, p.144.

## 2. 서울곳의 巫服

降神巫의 곳은 巫服이 華麗하고 곳에 사용되는 小道具가 多樣하며 각 거리마다 神을 象徵하는 神服이 있어서 무당은 각 거리마다 巫服을 갈아입는다.

### 1) 朝鮮時代의 서울곳 巫服

朝鮮時代 서울곳 巫服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빈약하나, 현재 精神文化研究院 藏書閣에 所藏되어 있는 자료 중 ‘온산松岳別祈禱撥記’와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巫黨來歷’이 있어 다행히도 조선시대 서울곳의 양상을 추측할 수 있다.

온산松岳別祈禱撥記는 1866년(丙寅年) 2월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宮中巫俗의 양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며 巫黨來歷은 제작자가 同一人으로 추

측되는 2卷의 책으로 대략 1825년 또는 1885년경의 것으로 추측되며 서울지방 민중의 巫俗에 대한 그림이 거리별로 그려져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 다음과 같다. <표 2>

### 2) 1930·1970年代의 서울곳 巫服

1930年代의 巫俗은 당시 京城地域에서 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巫儀의 하나인 薦新곳의 한 例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곳은 京城地域의 한 老巫女(원래 宮中에도 출입하던 사람)의 口傳에 의해 金東弼군의 보고를 기초로 해서 ‘赤松智城’氏가 실제 조사한 薦新곳의 절차를 적은 것이다.

1970年代 巫俗으로는 金泰坤이 연구한 사례로 문덕순 巫人의 곳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서울곳 기능보유자이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지산 巫人의 곳을 살펴보았다.<sup>2)</sup>

<표 2> 文獻을 통해 본 조선시대 서울곳의 巫服

		제1거리	제2거리	제3거리	제4거리	제5거리	제6거리
온산松岳別 祈禱撥記	巨里	눔조오신	별군웅	산마누라	王神	國大夫人	당자부인
	巫服	호수림식림 전립 다홍철릭 청협수 장색패자 남전대 남광다회대	남철릭 다홍대	호수림식림 남철릭 백창의 다홍당다회띠 칠엽선	홍철릭 남전대	초록 걸마기 남 걸치마	菊花색 저고리 다홍 치마
巫黨來歷 I	巨里	부정거리	제석거리	대거리 (최장군거리)	호구거리	별성거리	감응청배
	巫服	황색저고리 (홍색 반회장 남치마) 분홍저고리 (남색반회장) 초록색 치마	백색 고깔 백색 장삼 홍색 가사 홍색 대	호수 주림 남철릭 홍광대 녹색 치마	홍색 면사 황색 저고리 (홍색삼회장) 홍색 치마	전립 주황색 협수 (홍색 소매) 흑색 전복 청전대 황색 저고리 녹색 치마	녹색 장옷 남색 치마

2) 이는 1993년 11월 27일 서울 定都 600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극악인 김혜란씨가 서울곳을 공연하였고, 이때 이 지산 무인의 고증으로 곳의 거리별 巫服이 전시되었다. 그런데 이 지산 巫人은 이미 1970년대부터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므로 이시기에 포함시켰다.

巫黨來歷Ⅱ	巨里	감응정배	제석거리	별성거리	대거리 (최장군거리)	호구거리	신장거리
	巫服	초록색 장옷 주황색저고리 남색 치마	백색 고깔 백색 장삼 홍색 가사 홍색 대	주립 주황색 협수 (홍색 소매) 흑색 전복 청전대 황색 저고리 초록색 치마	호수 주립 남철릭 홍광대 주황색 치마	홍색 면사 황색 저고리 (홍색삼회장) 홍색 치마	주황색 저고리 (남색 반회장) 초록색 치마
		제7거리	제8거리	제9거리	제10거리	제11거리	제12거리
은산松岳別 祈禱 撥記	巨里	자안아기시	호그아기시	장단말명	승당	감악산	세도령
	巫服	국화색저고리 다홍 치마	국화색 결마 기 다홍결치마	옥색순저고리 남치마	황장삼 초록당저고리	백장삼 다홍띠	초록 증치마
巫黨來歷Ⅰ	巨里	조상거리	만신말명	구룡거리	창부거리	逐鬼	뫼전
	巫服	흑립 초록색소창의 남색 치마	황색몽두리 남색 치마	호수 주립 홍철릭 청전대	전립 흑색 전복 청전대 황색 저고리 (남색 회장) 초록색 치마	전립 주황색 협수 (홍색 소매) 흑색 전복 황색 저고리 녹색 치마	황색 저고리 (남색반회장) 남색 치마
巫黨來歷Ⅱ	巨里	만신말명	신장거리	창부거리	성조거리	구룡	뫼전
	巫服	황색 몽두리 홍색 대 남색 치마	전립 흑색 전복 주황색 협수 (홍색 소매) 황색 저고리 (홍색 회장) 초록색 치마	전립 흑색 전복 청전대 홍색 저고리 (남색삼회장) 초록색 치마	흑립 옥색 소창의 남색 치마	호수 주립 홍철릭 청전대	주황색 저고리 초록색 치마

3) 1990年代의 서울굿 巫服<sup>3)</sup>

現代 巫服을 연구하기 위하여 1990년대의 서울 굿 巫服은 1991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사례 중 굿의 절차가 상세히 조사된 4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현대무복 연구에 참고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그에 나타난 巫服의 종류는 <표 3>과 같다.

4) 1994年 現在 巫人의 서울굿

<표 4>는 1994년 현존하고 있는 巫人들로서 ‘대한 승공경신연합회’에 등록된 巫人들 중 서울굿을 행하는 5人を 추천받아 각 巫人의 巫服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3> 1930 · 1970年代의 서울굿 巫服

		제1거리	제2거리	제3거리	제4거리	제5거리	제6거리
薦新굿 巫服	巨屨	부정거리	가망거리	산마누라	별상거리	대감거리	제석거리
	평상복	長衣	호수주립 구군복 남철릭 홍대	전립 남색의상 구군복 전대	전립 패자 전대	백색승복 백색장삼 금란가사	
문덕순	巨屨	부정거리	가망거리	말명거리	상산거리	별상거리	대감거리
	巫服	平常服	구군복	평상복	구군복 전복 남철릭	구군복 전복	군복
이지산	巨屨	불사거리	천조호구거리	가망거리	대신발명거리	조상거리	상산마누라거리
	巫服	불사장삼 홍가사 흰고깔	녹원삼 죽두리	녹색포	노랑몽두리	흑색패자 청전대 전립	홍철릭 홍띠 주립
		제7거리	제8거리	제9거리	제10거리	제11거리	제12거리
薦新굿	巨屨	천왕거리	오귀거리	군웅거리	창부거리	만명거리	후전
	巫服	백색승복 백색장삼 금란가사	면사보 홍색의상	호수색립 홍철릭	조립 색동저고리	남색의상	평상복
문덕순	巨屨	불사제석거리	큰구거리	성주거리	군웅거리	창부거리	뒷전
	巫服	백장삼 흰고깔 붉은가사	평상복	홍철릭 붉은갓	홍철릭 붉은갓	창부옷	평상복
이지산	巨屨	별상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	제석거리	호구거리	창부거리
	巫服	홍색포 흑색패자 청전대	녹색협수 흑색패자 청전대 전립	흑색패자 청전대 주립	흰색불사장삼 흰색고깔	평상복	녹원삼

3) 1990年代의 서울굿 巫服은 서울民俗大觀 I, 서울巫俗篇에 서울특별시 文化財委員會에서 調查報告한 事例 中 서울 굿 巫服이 조사된 4가지 事例만 선택하여 考察하였다.

<표 4> 1990年代의 서울굿 巫服

		제1거리	제2거리	제3거리	제4거리	제5거리	제6거리
임옥인	巨里	산신거리	불사거리	칠성거리	제석거리	호구거리	대신거리
	巫服	산신복	불사복 홍·녹가사 흰고깔	2거리와 동일	2거리와 동일	평상복 홍보자기	중중복
	※ 임옥인 巫人의 부정거리와 뒷전은 거리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슴						
한길순	巨里	부정거리	불사거리	칠성거리	제석거리	신중거리	산신거리
	巫服	흰색 옷 고깔	흰색 옷 고깔	흰색 옷 고깔	흰색 옷 고깔	회색장삼	홍도포 홍철릭
	※ 뒷전은 거리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슴						
전명숙	巨里	부정거리	변양거리	도당거리	서낭거리	군용거리	신장거리
	巫服	신장의대 대감의대 변양의대	신장의대 대감의대 변양의대	신장의대 대감의대 변양의대	신장의대 대감의대 변양의대	신장의대 대감의대 변양의대	신장의대 대감의대
	※ 13거리 : 화덕장군거리 → 변양의대 14거리 : 창부거리 → 창부의대 15거리 : 선왕거리 → 창부의대 16거리 : 뒷 전 → 평상복						
				12거리보다 4거리가 많다.			
서영화	巨里	초부정거리	상산거리	조상거리	불사거리	대감거리	장군거리
	巫服	平常服	朱笠 신장의대 대감의대 대감전복	주립 신장의대 대감의대 대감전복	흰색불사장삼 흰색 고깔	신장의대 대감의대 대감전복 후립	신장의대 대감전복 남철릭 협수 주립
		제7거리	제8거리	제9거리	제10거리	제11거리	제12거리
임옥인	巨里	장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	성주거리 (군용거리)	창부거리
	巫服	남철릭 홍철릭	신장복	신장복	쾌 자	군용복	창부의대
	※ 임옥인 巫人의 부정거리와 뒷전은 거리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슴						
한길순	巨里	대신장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巫服	노랑몽두리 남철릭	감옷 투구	동달이	쾌 자	홍철릭	홍철릭
	※ 뒷전은 거리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슴						
전명숙	巨里	대감거리	불사거리	장군거리 (별상거리)	대감거리	조상거리	성주거리
	巫服	신장의대 대감의대	불사의대	장군별상의대	별상의대 대감의대	대신의대	변양의대
	※ 13거리 : 화덕장군거리 → 변양의대 14거리 : 창부거리 → 창부의대 15거리 : 선왕거리 → 창부의대 16거리 : 뒷 전 → 평상복						
				12거리보다 4거리가 많다.			
서영화	巨里	별상거리	신장거리	호구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뒷 전
	巫服	신장의대 대감전복 협수 감옷	신장의대 대감전복 후립	평상복	홍철릭 주립	원 삼	평상복

### Ⅲ. 서울굿 巫服의 特性

#### 1. 서울굿 巫服의 造形性

##### 1) 巫服의 造形的 特性

서울굿에서 각 거리별로 착용되고 있는 衣服들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平常服, 佛師長衫, 天翼, 具軍服, 蒙頭里, 圓衫이 주로 착용되고 있으며 長衣, 小斂衣, 별상의대, 성전의대 및 일반적인

袍도 착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복들은 굿의 각 거리별 神을 상징하는 의복이지만 인간의 평상시 의복과 동일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무복의 조형성은 전통 복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생활에서 거의 착용하지 않는 의복들은 조형성 측면에서 전통복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佛師長衫은 전통의 조형성과 동일한 것도 있으나 전통적인 佛師長衫制와는 달리 上·下 한 장으로 재단되고 뒷중심의 허리선 이하가 트여 있

<표 5> 1994年 現存 巫人의 서울굿의 構造 및 巫服

		제1거리	제2거리	제3거리	제4거리	제5거리	제6거리
방창환	巨屨	부정거리	월성거리	부정거리	산거리	대감거리	신장거리
	巫服	평상복	백색고깔 백색불사장삼 홍·청가사 홍대	호수장식흑립 남괘자 남철릭	전립 남괘자 홍철릭	전립 남괘자 홍철릭	남색 협수 (홍색 협수)
박인오	巨屨	부정거리	가망거리	산거리	대신거리	불사거리	소신장·소대감거리
	巫服	평상복	남괘자 노랑 불두리 홍치마	주립 홍철릭 홍치마	노랑 몽두리 홍치마	백색불사장삼 회색불사장삼 홍치마	전립 남색 협수 (홍색 소매) 옥색 패자 홍광대 홍치마
최성자	巨屨	불사거리	월성거리	제석거리	천왕거리	호구거리	산신거리 (산균용거리)
	巫服	백색 고깔 백색불사장삼 홍·녹가사 홍대	백색 고깔 백색불사장삼	백색 고깔 백색불사장삼	회색 고깔 회색불사장삼	평상복 붉은 치마를 머리에 씌	주 립 홍철릭 (회색 끝동)
김민식	巨屨	부정청매	상산거리	산신장거리	산대감거리	불사거리	호구거리
	巫服	평상복	주립 홍철릭 남치마	전립 남색 협수 (홍색 소매) 흑색 전복 남치마	흑색 전복 남치마	백색 고깔 백색불사장삼 녹·홍가사 홍대 홍치마	평상복
최진일	巨屨	부정거리	불사거리	대신거리	성전거리	장군거리	별상거리
	巫服	평상복	백색 고깔 백색불사장삼 정·홍가사 홍대	황색 몽두리 홍치마	황색포	남철릭	녹색의 선녀복

		제7거리	제8거리	제9거리	제10거리	제11거리	제12거리
방장환	巨里	별상거리	가망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조상거리	뒷 전
	巫服	죽두리 남패자 녹색의(색동 소매의 袍형)	호수장식흑립 남패자 녹원삼	홍철릭	녹원삼	노랑 몽두리	평상복
박인오	巨里	대신본거리	장군거리	신장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뒷 전
	巫服	노랑 몽두리 홍치마	주립, 녹원삼 남패자 홍광대 남철릭, 대 황금색 포 남치마	전립 남색 협수 (홍색 소매) 남패자 홍광대 남치마	주립 홍철릭 홍치마	녹원삼 홍치마	평상복
최성자	巨里	소신장·소대 감거리	대신거리	발명거리	장군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巫服	전립 남색 협수 (홍소매) 패자	황색 몽두리 홍치마	황색 몽두리 홍치마	남철릭 갑옷	홍철릭	녹원삼
김민식	巨里	육신장거리	장군거리	별상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뒷 전
	巫服	노랑 몽두리 홍치마	주립 남철릭 남치마	남색 협수 (홍색 소매) 남치마	홍철릭 홍치마	녹원삼 홍치마	평상복
최진일	巨里	신장거리	대감거리	조상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뒷 전
	巫服	연두색 협수 (홍색 소매) 전복	홍철릭 남패자	회색포	홍포	녹원삼	평상복



〈그림 1〉 불사장삼  
(1994년 현존 무인의 무복)

고 깃도 쌍깃으로 되어 있으며 소매의 팔꿈치 부분이 트여 있는 것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1〉

天翼 또한 변화가 있어 1930년대와 1970年代의 巫服에서는 흰색 한삼이 철릭의 소매 자체에 마치 끝동처럼 연결되어 있고 팔꿈치 부분에 트임이 있다. 1994년 現存 巫인들이 巫服으로 착용된 철릭은 깃이 직령이 아니라 쌍깃이며, 上·下衣가 한 장으로 재단되고, 뒤 중심선에서 허리선 아래가 트여 있는 형태를 착용하는 등 철릭 특유의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 〈그림 2〉

具軍服 역시 전통성과는 다르게 계승되고 있는데, 狹袖는 형태상의 큰 변화는 없으나 길의 색상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戰服은 基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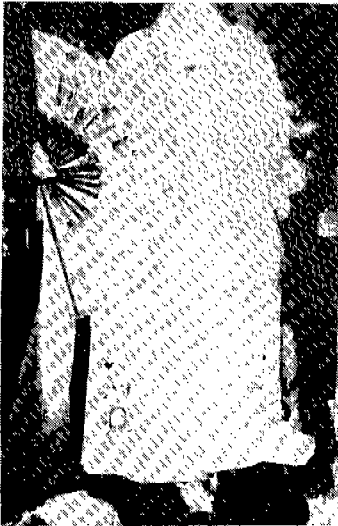




<그림 2> 철릭  
(1994년 현존 무인의 무복)



<그림 3> 구군복  
(1994년 현존 무인의 무복)



<그림 4> 몽두리  
(1994년 현존 무인의 무복)



<그림 5> 원삼  
(1994년 현존 무인의 무복)

制度에 변화가 있어 쌍깃과 흰색의 동정이 달린 것을 대부분의 巫인들이 巫服으로 착용하고 있다.

<그림 3>

蒙頭리는 소매의 형태가 두리 소매이며 마치 철릭의 기본제와 같이 上衣下裳이 따로 재단되어 연결되고 下裳에 주름을 잡은 것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1994년 현존 무인들이 무복으로 착용한 圓衫은 모두 녹원삼이며 대부분 전통적인 원삼과는 차이가 보여지고 있다. 대부분의 圓衫은 앞길과 뒷길의 길이가 같고, 혹시 틀리더라도 뒷길이 약간 길게 되어 있을 뿐이며, 안과 겉의 色相이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자수를 놓아 마치 활옷과 같은 느낌이 나는 것도 보여지고 있다. <그림 5>



〈그림 6〉 장 의  
(1980년대 巫黨來歷)



〈그림 7〉 소창의  
(1800년대 巫黨來歷)



〈그림 8〉 별상의대  
(1994년 현존 무인의 무복)



〈그림 9〉 성전의대  
(1994년 현존 무인의 무복)

그외에도 長衣〈그림 6〉나 小髷衣〈그림 7〉가 무복으로 착용되었는데, 이들은 조선시대에도 巫服으로 착용되었다.

그러나 1994년 현존 무인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착용하고 있는 별상의대〈그림 8〉, 성전의대〈그림 9〉 등은 전통적인 의복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조형성을 보이고 있다.

## 2) 서울굿 巫服 變化의 特性

굿을 할 때 착용되고 있는 巫服은 傳統服飾 중 일부로서 朝鮮時代의 巫服은 基本形態나 着用方法등이 일반적으로 착용된 衣服들과 차이가 별로 없다. 巫俗에서의 神은 絕對의 이 아니라 人間의 이기 때문에 人間과 동일한 衣服을 巫服으로 착용하므로 朝鮮時代의 巫服은 傳統服과 동일한 形態나

着用方法이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1930年代부터의 서울곳 巫服을 보면 기본形態나 着用方法등에 變化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994年 現存 巫人의 巫服은 傳統服의 造形性과 달리 形態가 단순해지거나 色相이나 裝飾이 화려해지기도 하고 여러 衣服의 特性을 조합하여 만든 衣服도 착용하는 등 巫服이 變化하고 있다. 現代의 巫服은 다음과 같은 特性을 지니고 變化하고 있다.

### (1) 巫服의 機能化

現代 巫服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고 있는 變化는 巫服의 單純化 現象으로 이미 1930年代에 단순한 形態의 巫服이 등장하고 着用方法도 單純化 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다.

1930年代 巫服의 單純化 現象으로 天翼의 소매 끝에 흰색의 汗衫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天翼과 佛師長衫, 원삼의 팔꿈치 위치에서 앞부분에 트임을 만들어 굵을 할 때 팔을 쉽게 내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있다. 1930年代는 合理性, 機能性을 重視하는 西洋文物이 도입된 시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衣服의 簡素化가 이루어진 時期로서 당시 巫服의 單純化 現象은 衣生活의 單純化 現象과 일치한 現象이라고 보겠다.

특히 1994年 現存 巫人들은 이러한 機能性이 더욱 고려되어 있는 巫服을 착용하고 있다. 天翼이나 佛師長衫 같은 衣服을 보면 下裳部分에 약간만 주름을 잡아 幅이 簡素化 된 것도 있으며, 또한 上衣와 下裳이 한 장으로 재단되고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뒷중심의 허리선 이사가 트임으로 처리된 것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幅이 좁고 길이가 짧아져 있다. 이러한 簡素化 傾向은 蒙頭里에서도 나타나는 現象으로 朝鮮時代 蒙頭里의 소매는 통이 넓은 廣袖였으나 現代의 것은 통이 좁은 두리소매이며 길의 幅이 좁아지고 길이도 짧아져 현대여성 의 두루마기의 形態와 類似하게 簡素化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現代의 巫服은 대부분 幅이 좁아지고 길이가 짧아지는 등 簡素化 되고 있는 傾向으로 이러한 機能性이 고려된 巫服은 社會全般에 내

재되어 있는 機能化 追求現象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겠다.

### (2) 巫服의 個性化

現代 巫服의 特性 中 하나는 높은 裝飾性으로 朝鮮時代의 巫服은 傳統服과 동일하여 裝飾을 거의 하지 않았고, 1930年代는 佛師長衫의 袈裟에 金箔을 찍는 정도의 裝飾이 가해진 巫服이 등장하고 있으나 비교적 華麗한 裝飾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4年 現存 巫人들은 性別과 관계없이 대부분 華麗한 裝飾을 한 巫服을 착용하고 있다. 巫服을 裝飾하는 기법으로는 여러 가지 色相의 천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은 잣무늬 裝飾이나 꽃 또는 動物文樣으로 繡를 놓거나 색동천으로 파이핑 장식을 하는 등의 技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裝飾技法은 모든 巫服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장식기법이나 모든 巫人들이 同一한 巫服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巫人에 따라서 裝飾要素의 形態나 色相을 달리하여 獨特한 特性을 지닌 巫服을 착용하고 있다.

現存 巫人들이 자신만의 獨特한 特性을 지니고 있는 華麗한 巫服을 착용하는 것은 굵을 할 때 굵을 행하는 자신이나 굵을 의뢰한 가족들의 感情을 興奮시킴으로써 굵판의 券圖氣를 고조시키기도 하나 이보다는 巫人들이 自身의 個性을 표현하기 위한 目的이 더 우선이라고 본다.

1994年 現存 巫人들이 착용하고 있는 巫服이 華麗해지는 傾向은 現代人의 衣生活에서의 個性化 傾向이 반영되어 巫人들도 巫服에 자신의 個性을 表出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現象은 現代 巫服의 個性化 現象이라고 볼 수 있겠다.

### (3) 巫服의 多樣化

1994年 現存 巫人의 巫服 多樣化 現象 또한 現代 巫服 變化의 特性으로 이는 現存 巫人의 巫服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現象이다.

現存 巫人들의 巫服을 보면 5~6種의 傳統服이 巫服의 기본을 이루고, 各個人에 따라 獨特한 形態나 色相, 또는 裝飾이 된 巫服을 착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衣服으로는 대표적으로 別상거리에서

착용하는 별상의대를 볼 수 있는데 現存 巫人의 별상의대 中에는 圓衫과 天翼의 特性을 조합한 것도 있으며, 圓衫과 활옷의 特性을 조합한 것도 있다. 새로운 形態나 裝飾이 된 별상의대 外에 佛敎의 法衣인 長衫은 現代의 巫人중에는 흰색뿐만 아니라 회색을 착용하기도 한다. 또한 여러 가지의 袍 種類의 衣服들도 巫服으로 착용되기도 하며, 한 거리에서 여러 번 巫服을 갈아입기도 하고, 명칭을 알 수 없는 袍 種類의 衣服들을 겹쳐 입기도 하는 등 巫服에서 多樣化가 이루어졌다. 現存 巫人들에게서의 巫服의 多樣化 現象은 現代人의 衣生活의 多樣化 現象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現代 巫服의 機能化, 個性化, 多樣化는 복잡한 現代 社會에서 機能性을 追求하며, 多變化 社會에서 個性을 追求하고, 産業技術 및 情報通信의 발달로 인한 多樣化 社會에서 多樣性을 追求하는 現代人의 服飾觀과 일치한다고 보겠다.

## 2. 서울굿 巫服의 象徴性

서울굿에서 굿을 할 때 巫人들은 각 巨里마다 神을 象徴하는 神의 衣服으로서 巫服을 着用하여 神과의 一元化 現象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굿에서 착용하고 있는 巫服의 象徴性을 分類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聖의 象徴

巫人은 神에게서 靈力을 부여받았으며 自然과 文化와의 仲介者로서의 역할을 또한 부여받았다. 따라서 巫人이 굿을 할 때는 俗界에서의 人間은 소멸하고 聖界의 神으로서 거듭나는 것이다. 巫人은 平凡한 俗의 服으로는 神을 접할 수 없다. 神의 服을 착용할 때 비로소 神은 巫人과 接하는 것이다. 巫人의 巫服은 그 자체로서 宗教的인 히어로 파니(hierophany : 거룩한 것의 드러남, 곧 성현)와 코스모그래피(cosmography : 우주형상지)를

이룬다. 巫服은 거룩한 것의 臨在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宇宙的 象徴과 形而上學의 道程을 계시하기도 한다. 巫人은 俗의 衣裳, 즉 平常服을 입고 있을 때에는 接神體驗을 하지 않는다. 巫服은 巫人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주위의 世界와는 다른 宗教的인 小宇宙가 되었음을 나타낸다.<sup>4)</sup>

굿에서 착용되는 巫服에는 俗의 世界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화려한 色相들이 주로 사용된다. 赤·靑·綠色의 다양한 色으로 구성된 색동의 소매가 달린 草綠色 길, 紅色 소매의 藍色 길, 靑·紅의 袈裟, 紅色 길에 藍色 삼회장, 黃色 길에 紅色의 삼회장, 黃衣藍裳, 黃衣錄裳, 黃衣紅裳 등 巫服에서의 色의 調和는 대조적인 色相들을 배치하여 얻고 있다. 이러한 象徴은 서울굿 열두거리의 巫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굿 열두거리에서 神의 차림은 佛敎와 道敎의인 外來宗教와 習合된 神을 請하는 굿거리에서만 흰색의 僧服이 착용될 뿐 모든 거리의 神服이 울긋불긋하다. 巫人이 接神할 때는 그 神의 格에 합당한 神服으로 갖추어 입고 神의 世界로 들어가기 때문에 俗의 世界에서는 불가능한 차림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

### 2) 神格의 象徴

우리 巫俗에서의 神은 지극히 人間的인 神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巫服은 그 神의 品格에 합당한 衣服을 착용한다. 비록 巫人이 賤待받고 抑壓받는 時代였음에도 불구하고, 巫人이 굿을 할 때에는 賤한 身分이 아닌, 神의 身分으로 변한 존재이기 때문에 禮를 갖추는 것이다.

잡귀나 잡신을 물리치기 위한 전투를 해야하는 오방신장을 모시는 신장거리의 巫服이나 전투적 특성을 띤 神들의 무복은 戰笠을 쓰고 狹袖를 입고 戰服을 갖추어 입는 구군복 차림이다. 또한 格이 높은 神을 모시는 거리의 巫服은 대부분 철릭을 착용하며 神의 身分에 합당한 예를 갖추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祖上巨里에서 착용되고 있는 神

4) M. Eliade, 이운기 譯, 샤머니즘, 도서출판 까치, 1992, pp.148~149.

5) 具美來, 韓國人의 象徴世界, 敎保文庫 1992, p.55.

服이다. 여기서의 祖上神이란 巫人의 祖上이 아니고 굿 依賴人의 祖上神이기 때문에 祖上神의 神格이 명확하지가 않다. 巫人은 굿 도중에 어느 한 祖上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組上을 맞아야 하므로 어떤 특정한 神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神服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巫人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神服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다.

### 3) 陰陽五行思想의 象徵

陰陽五行思想은 中國을 중심으로 한 東洋文化圈에서 宇宙認識과 思想體系의 중심이 되어 온 原理<sup>5)</sup>로, 陰陽說에 依하면 陰氣의 鬼神은 人間生活에 災禍를 가져온다. 鬼神은 陰性인 까닭에 청명한 대낮에 鬼神이 나타나지는 않으며 陽性인 남자보다는 여성에게 부착하는 수가 많다.<sup>6)</sup> 따라서 굿을 할 때 巫堂의 性이 비록 男性일지라도 꼭 女裝을 해왔고, 오늘날에도 男性 巫堂들의 경우 속에 男性用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꼭 女性用 치마를 입는다.

巫服에는 赤, 靑, 黃의 陽의 色相이 主를 이루고 그 외에 白, 綠, 朱紅등도 사용되기도 하며, 黑色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巫服에서의 基本服飾으로 착용하고 있는 저고리와 치마의 色相들은 모두 陽의 色相인 赤·靑色이 주를 이루어 陰인 神과는 훌륭한 調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巫服에서 사용되는 치마는 흥치마, 남치마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陰陽五行思想에 근거한 色으로 疫鬼를 쫓을 때 사용되고 五方色 중에서도 陽氣가 왕성한 色<sup>7)</sup>인 것이다.

특히 朝鮮時代 巫服인 蒙頭里의 어깨에는 紅色 잣부늬 장식과 紅色의 帶를 가슴에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陽의 色相으로서 구성되고 있음이 보이고 있다. 우리의 固有服飾에

서 자주 사용되는 색동은 굿을 할 때 原色의 視覺效果로 呪術의인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굿에서 巫堂이 착용한 袍의 색동 소매와 색동 한삼, 색동의 깃발들은 神과 交通하는 呪力의 상징으로 수용되었는데,<sup>8)</sup> 색동의 화려한 色彩 調和는 陰陽五行說의 呪術的인 色彩觀에 근거하고 있다.<sup>9)</sup>

黑色은 五行思想에서 불 때 陰의 色相이며 巫俗에서는 吉한 것보다는 凶한 것을 象徵하는 것으로 黑色은 대부분 排除된다. 이는 또한 陰인 神과 巫服의 陰이 겹친다면 陰이 너무 盛하게 되고 그 때문에 凶事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陰의 重複現象을 피하여 巫服은 陽으로 취하는 것이다: 즉 강한 陽의 色相으로 陰陽의 調和를 피하며 神의 강한 呪力을 취하여 凶함을 물리치는 것이다.

### 4) 巫人이 追求하는 象徵性

現代의 巫人들은 巫服을 화려하게 할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象徵적으로 표현하고자 巫服에 여러 가지 색의 천을 잣모양으로 접어 裝飾을 하거나 다양한 文樣으로 繡를 놓아 裝飾하고 있다. 現代의 巫人들이 巫服의 裝飾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理想을 크게 나누어 보면 現世에서의 完成·安定에 대한 念願, 사랑과 再生에 대한 念願, 高潔한 삶에의 念願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現世에서의 完成·安定에 대한 念願은 잣모양으로 접은 장식의 형태에서 볼 수 있다. 이 장식은 세 角과 세 邊으로 되어 있는데, 東洋에서 '三'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보면 '三'은 陽數의 始作인 純陽 '一'과 陰數의 始作인 純陰 '二'가 최초로 결합하여 생겨난 變化數이다. 즉 陰陽의 造化가 비로소 완벽하게 이루어진 수가 '三'이다. 따라서 '三'은 陰陽의 대립에 하나를 더 보냄으로서 完成, 安定, 造化, 變化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6) 앞글, pp.88~89

7) 李善宰, 朝鮮時代 儒敎思想과 儀禮服 研究, 世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p.59

8) 金泰坤, 韓國의 巫俗, 博物館新聞, 9月號 1985.

9) 琴基淑, 朝鮮服飾美術, 悅話堂 1994, p.78.

옛 先賢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음으로서 비로소 이 세계가 완성되고 살아 움직이게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天, 地, 人의 三才를 기본으로 하여 완성과 안정을 상징하고 있는 ‘三’이란 數는 곧 완성된 하나를 강하게 시사한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三’은 完成과 安定을 상징하는 가장 神聖하고 理想的인 數이며, 동시에 純陰과 純陽이 합해서 變化를 指向하는 發展의 數이다.<sup>10)</sup> 결국 巫服에 사용되고 있는 裝飾要素로서 三角形 잣무늬 장식은 俗世에서의 완전함과 안정을 염원하는 인간의 소망과 神에게로 향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겠다.

둘째로 사랑과 再生에 대한 念願은 現代巫服의 裝飾要素중 三角形으로 접은 잣무늬 裝飾과 함께 다음으로 애용되고 있는 것은 꽃문양의 刺繡裝飾에서 볼 수 있다. 巫服의 裝飾要素로서 繡 놓여진 꽃은 모란과 연꽃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꽃은 열매라는 결실과 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정전에서 심청이가 꽃에서 재생하고 있다. 巫堂들이 神堂을 꽃으로 장식하고, 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再生과 復活에 대한 욕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낡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며, 그것은 곧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다.<sup>11)</sup> 巫人들은 巫服의 裝飾要素로 꽃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現實의인 사랑의 缺乏과 理想的인 사랑의 結實에 대한 念願을 象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現實生活로부터의 解放과 새로운 세계에서의 復活, 再生의 念願을 象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高潔한 삶에의 念願은 現代巫服의 刺繡裝飾要素로 사용되고 있는 動物文樣에서 찾아볼 수 있다. 巫服의 動物文樣으로는 학, 호랑이, 용, 사슴, 나비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 호랑이, 용,

사슴, 나비 등은 一部 巫人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반면, 鶴 文樣은 모든 巫人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鶴 文樣은 선비의 기상과 長壽를 나타내고 十長生 중의 하나로서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무너로도 널리 쓰여졌다.<sup>12)</sup>

실제로 巫人들은 자신들이 俗世에서 살고 있지만 평범한 俗人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神이 선택한 사람으로서 巫人의 삶이 고되고 힘들어 巫人으로서의 삶을 떨쳐 버리고 싶지만 神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은 평범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현실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神을 접하여 神을 닮아 가고자 하며 고결한 삶을 이상으로 추구하는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따라서 巫人들은 高潔하고 崇高함을 상징하고 있는 雲鶴의 文樣을 巫服의 裝飾要素로 사용하여 위와 같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理想的인 삶을 象徴적으로 表現하고 있다고 보겠다.

#### IV. 結 論

이상으로 우리 民族의 土俗信仰이며, 傳統文化인 巫俗에 대해 概括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 서울굿의 樣式 및 서울굿 巫服에 대해 集中的으로 살펴보았다.

서울굿이란 서울에서 행해지는 굿을 말하는 것으로 한양굿이라고도 불린다. 서울굿의 類型은 神이 몸에 내려 내림굿을 하고 巫人이 되는 降神巫로서, 巫人의 집에 神堂을 꾸미고 神堂을 울굿불굿한 형상의 巫神圖로 장식한다. 굿을 할 때 巫堂은 奏樂과 함께 심한 跳舞를 하고, 巫樂器로는 長鼓 외에 奚琴, 피리, 북도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북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서울굿의 樣相은 文獻上的 記錄에 나타난 굿의 形態로 보아 적어도 12C경에 이미 형성되었던 현상이라

10) 具美來, 앞글, pp.18~19.

11) 徐廷範, 무녀별곡3 새타니와 질거바리, 한나라 1992, pp.94~161.

12) 앞글, p.29.

고 보겠다.

서울굿은 기본적으로 열두 거리를 하고 있으나  
 巫人이나 굿의 種類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씩의 차이가 있다.

서울굿의 사례들을 比較分析해 본 결과 시대가  
 변하여도 꾸준히 많은 巫人들이 행하는 거리들로  
 는 唱夫巨里, 神將巨里, 成主巨里, 大藍巨里, 佛師  
 巨里, 祖上巨里, 山神巨里, 將軍巨里, 不淨巨里,  
 뒷전 등이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一部 巫人들  
 만 행하여 퇴화되어 가고 있는 巨里들로는 戶口巨  
 里, 말명거리, 구릉거리가 있다. 반면에 現代에 이  
 르러 새로 生成된 巨里들로서 대신거리, 서낭거  
 리, 성전거리, 천존호구거리, 화덕장군거리, 도당  
 거리, 선왕거리가 있는데, 이 중 대신거리만 여러  
 巫人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시대가 변  
 함에 따라 거리의 특성이 변한 거리로는 감응거리  
 가 있다.

서울굿 巫服은 傳統服飾의 일부로서 朝鮮時代  
 에 착용된 巫服은 基本形態나 着用方法등이 일반  
 적으로 착용된 衣服과 동일하다. 비교적 많은 巫  
 人들에 의해 행해지는 굿 거리들과 대표적인 巫服  
 을 살펴보면 不淨巨里와 뒷전의 巫服은 平常服,  
 唱夫巨里에는 綠圓衫을, 神將巨里에는 具軍服을,  
 將軍巨里와 大藍巨里에서는 具軍服이나 天翼을,  
 成主巨里·山神巨里·구릉거리에서는 天翼을, 佛  
 師巨里·帝釋巨里·七星巨里에서는 佛師長衫을,  
 別相巨里에서는 具軍服이나 갑옷 또는 綠色衣를,  
 감응거리에서는 長衣나 圓衫·몽두리를, 戶口巨  
 里·大臣巨里에서는 몽두리를 착용하고 있다. 각  
 거리에서 神을 象徵하는 道具로는 가장 곁에 입은  
 옷, 즉 表衣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로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巫服과는  
 차이를 보고 있는데, 1930年代의 경우, 巫服의 基  
 本形態나 着用方法이 단순해지는 變化가 발생하  
 였는데 이 때는 合理性과 機能性を 重視하는 西洋  
 文物이 導入된 時期로 巫服에서도 機能性を 重視  
 한 것이라고 본다.

1994年 現存 巫人의 巫服은 傳統服의 造形성과

는 달리 단순해지거나 화려해지고 있으며 여러 衣  
 服의 特性을 조합하여 만든 衣服도 등장하고 있  
 다. 現代 巫服의 이러한 變化는 社會的인 要因들  
 이 반영된 것으로 複雜한 社會의 構造에 適合한  
 活動性和 機能性を 重視하고, 多變化 社會에 適合  
 하게 個性을 表出하려하고, 産業技術의 發達로 인  
 한 多樣化 社會에서 多樣性を 追求하는 現代人의  
 服飾觀과 일치하고 있다고 보겠다.

마지막으로 서울굿에서 착용되고 있는 巫服, 즉  
 神服이 상징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巫服에는 巫人  
 의 세계가 聖의 世界라는 점, 굿의 각 거리별 神  
 格, 陰陽五行 思想을, 巫人들이 각자 추구하는 삶  
 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巫黨來歷
- 具美來, 韓國人의 象徵世界, 教保文庫, 1992
- 琴基淑, 朝鮮服飾美術, 悅話堂, 1994
- 金光日, 韓國傳統文化의 精神分析, 教文社, 1991
- 金仁會, 韓國巫俗思想研究, 集文堂, 1988
- 金泰坤, 韓國의 巫俗, 博物館新聞, 1985. 9.
- 朴時人, 알타이 語族의 巫俗, 韓國民俗研究論文  
 選 III, 一潮閣, 1992
- 白英子, 韓國의 服飾, 경춘사, 1993
- 서울특별시 文化財委員會, 서울民俗大觀 1·2,  
 서울巫俗編, 1992
- 徐廷範, 무녀별곡 3 새타니와 질거바리, 한나라  
 1992
- 安昌京, 韓國巫俗의 演劇性에 관한 研究, 1986
- 柳喜卿, 韓國服飾史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出版  
 部, 1975
- 李善宰, 朝鮮時代 儒教思想과 儀禮服 研究, 世  
 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 M. Eliade, 이윤기 譯, 샤머니즘, 도서출판 까  
 치, 1992
- C. G. Jung, 설영환 譯, 無意識 分析, 선영사,  
 1986

## ABSTRACT

### A Study on the Korean Shaman's Costume —Focusing on Shaman's Costume in Seoul-G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system of the Korean Shaman's costume and its formative character and to find out the symbolic meaning of it.

This study focuses on a shaman's costume in Seoul-Gut, Seoul-Gut belongs to 'Gangsin-mu'. Therefore a shaman's costumes in Seoul-Gut remains even today.

Korean shamanistic ritual is gut. Its basic structure generally consists of 12 'Geori(a process is made up Gut)'. In Gangsin-mu, a shaman changes his/her spirit's costumes in each Geori, so that a shaman's costumes means the spirit. The shaman's costumes of 12-Geori in Seoul-Gut has only 5 or 6 kinds because shamans wear the same costume when the spirit's characters are similar with each other. Therefore, shaman's costumes in Seoul-

Gut are consistsof Pounsangbok, Pulsajangsam, chulik, Kugunbok, Monduri, and Wonsam.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modern shaman's costumes in Seoul-Gut and traditional costume in the basic pattern and the wearing method. Modern shaman's costumes in Seoul-Gut has become simpler in the basic pattern and more gergeous in the color or adornment, and more various in the kinds of shaman's costume than that of Yi Dynasty. This tendency in modern shaman's costumes reflects modernized folk's viewpoint in dress, which thinks highly of their individuality, and function and variety in it.

Korean shaman's costumes means the extinction of the earthly world and symbolizes the holy, symbolizes the spirits character, Ying Yang Theory, and represents shaman's wishes. The wishes are the desire of perfection and stability in this world, the desire of ideal love and rebirth, and the desire of lofty life in this world.